

5/28(토) 욥기 27-31장 생명력 있는 신앙

욥에게 믿음과 신앙, 질문과 고뇌는 <삶의 방식>입니다.

지금, 여기서, 하나님을 경험하며 반응하는 일들입니다(27:1-3).

욥은 고난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인 교통을 나눕니다.

그러나 세 친구에게 믿음은 <지식의 축적>이며 <기술>에 가깝습니다.

현장에서 벌어지는 일, 하나님과의 살아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

합리적 신념, 다수가 고백하는 진리, 상식적인 신앙을 나열하며

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처방들을 내립니다.

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(28:1-6)

우리가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(28:12).

지혜와 명철, 그 깊이와 가치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(28:13-19).

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으며(28:20-22,23),

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(28:25-28).

욥은 좋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(29장).

현실로 돌아온 욥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선서를 펼칩니다(30-31장).

욥은 부정한 일, 부정직한 일로 죄 짓지 않았으며(31:1-12),

약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(31:13-23).

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순전했습니다(31:24-40).

“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(31:35)”

세 친구는(전통주의, 율법주의 신앙) 욥을 돕지 못했습니다.

욥은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 주시길 간청합니다.

나의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?

❶ 나는 지금, 여기,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인 교통을 나눕니까?

❷ 질문하고 저항하며 답을 찾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욥기 27-31장